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니혼생명,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

- 일본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(日本生命保險)은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(中國農業銀行)과 제휴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함.
 - 니혼생명은 올해 3월말까지 중국 상하이시 및 주변 도시의 약 3,100여 개에 달하는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양로보험 등의 개인성보험을 판매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발표함.
 -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회사로는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(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) 등이 중국 현지 보험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.
 - 니혼생명은 이번 중국농업은행과의 제휴로 지점 수로 일본보험회사로는 최대 규모의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됨.

- 니혼생명은 2003년 중국 보험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중국농업은행의 강력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의 큰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임.
 - 니혼생명은 2003년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인 상하이광디엔그룹(上海廣電集團, SVA Group)과 합작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함.
 - 그러나 지점 수가 100여 개에 불과하고 최근 상하이광디엔그룹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작년 9월에 제휴 관계를 청산함.
 - 니혼생명은 두 번째 합작 대상으로 예금잔고 기준으로 중국 3위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새롭게 제휴하고, 중국 자회사 명칭을 중국장성자산관리(북경시)로 변경함.
 - 니혼생명은 앞으로 전국 약 2만 4,000여 개의 지점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히는 등 급성장 중인 중국 보험시장에서 판매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함.

(마이니치신문, 1/23)